야권대통합·보선 내홍 휩싸인 민주

孫 대표 리더십 부재·최고위원은 정치적 '발목잡기'

박주선 "이런 추태가…" 박지원 "국민보고 정치해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상한 '야권대통합'의 화두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좀처럼 야권대통합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내 현안에 머리를 맞대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민주당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등은 야권대통합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법 등을 놓고 가시 돋힌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 섞인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몸싸움이라도 일어날 듯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대통합을 주도할 전략을 가다듬고 공감대를 넓히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갈등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손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최고위원들의 정치적 발목잡기로 인해 민주당이 좀처럼 야권대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권대통합과 관련, 민주당은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의 야권 대통합 추진 모임인 '통합과 혁신'에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며 타 야당으로부터도 대통합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으며 푸대접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증'으로 무소속 후보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도부가 사태의 엄중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체 이런 추태가 어디 있나. 국민과 당원들에 고개를 들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갈등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건 자제하고,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파벌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내세우면서도 내분에 휩싸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통합 후보 선출에 나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대통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대통합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며 "당 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야권대통합에 나서 제1야당이자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태우 회고록 불태우는 시민단체 5·18 구속부상자회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고록를 불태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1인당 교육비 지원 고작 3만원

강원 33만원·전남 24만원… 최대 10배 격차

민주당 김춘진 의원 제기

신안 93만원 기초단체 5위

각 시도가 지원하는 '1인당 교육경비'가 많은 곳과 적은 곳 사이에 최대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의 교육경비 투자액은 1인당 평균 16만2500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광역+기초)별로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으로 33만4200원이었고, 이어 충남(27만4000원), 전남(24만4200원), 경남(19만6500원) 등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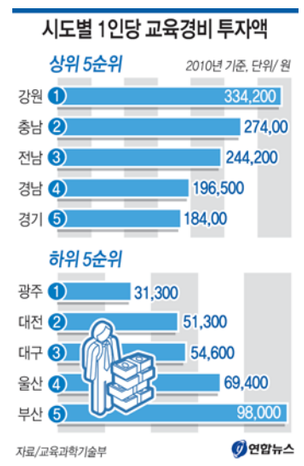
가장 적었던 광주는 3만1300원으로 강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에서는 신안군이 93만5900원으로 충북 괴산군(125만2400원)과 인천 옹진군(119만3300원)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한 반면, 광주 남구는 1만500원, 광주 광산구는 1만400원으로 전국에서 하위 9위, 8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6개 시도(광역+기초) 총 예산은 146조 6618억 4700만원이며, 이중 0.81%인 1조 1815억 2590만원이 교육경비 투자액이었다.

이를 시도별(광역+기초)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투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가 1.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01%, 강원 0.95%, 충남 0.92% 순이었고 광주는 0.25%로 가장 낮았다. 전남은 0.58%였다.

이와 함께 16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총액은 2059억 9962만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0.66%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전남은 0.02%로 가장 낮았다. 광주는 0.16%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액이 시도에 따라, 심지어는 서울처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간 경제력 격차 등을 이유로 7~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부를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노병인, 담양·곡성·구례 총선 출마

노병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9대 총선에서 담양·곡성·구례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노 부의장은 "32년간의 중앙과 지방 행정 현장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봉사하고 싶다"면서 "정책통으로서 보다 나은 정책개발에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담양출신인 노 부의장은 지난 1979년 행정고시를 거쳐 담양군수와 목포 부시장 등을 지냈으며 고 건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과 현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까지 역임했다가 최근 공직에서 물러나 민주당에 입당했다.

'혁신과 통합' 발족 본격 활동

진보 성향의 재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대통합 추진모임인 '혁신과 통합'이 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모임 제안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경남지사,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김기식·남윤인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혁신과 통합은 야권 대통합의 모습으로 연합정당을 제시하고, 통합 후에도 각 당의 정체성을 보장하고 집권 이후에는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혁신과 통합은 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철, 금강산 투자자산 해제 촉구

북한의 금강산 투자자산 몰수 동결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민·광산 갑) 의원은 5일 남북당국 모두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노력과 북한당국의 일방적 자산 몰수·동결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북한의 남한 자산 몰수·동결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남북당국 모두가 대화에 즉시 나서 실질적인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과 북한의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檢, 이르면 오늘 곽노현 영장 청구 검토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전을 주기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19일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서울 인사동에서 만나 선거비용을 보전하기로 최종 합의한 직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훼손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일부 정황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전남도 1800억 '실감미디어산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적정성 인정

전남도가 지식경제부, 경북도와 공동추진하는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 확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최종 분석돼 사업추진의 주춧돌을 놓게 됐다.

전남도는 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B/C) 분석은 1.12, 종합적정책분석(AHP)는 0.729로 나타나 사업 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종 사업비는 1847억원으로, 기술개발에 1200억 원, 산업기반 조성에 422억 원, 성과확산 사업에 225억 원 등으로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실감미디어산업은 사용자의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실감콘텐츠와 미디어 제작, 전송, 처리기술 등의 분야를 총칭하는 것으로 미래 방송통신 및 콘텐츠산업을 아우르는 최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직판1등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확정!!
10월15일 단하루!!
ONLY 단하루!
방콕 · 파타야5일
10/15(토) 12:30무안공항출발
10/19(수) 06:30무안공항도착
실속관광 방콕 · 파타야 5일관광 589,000원~
특전 특급 호텔사용,전통안마,코끼리트래킹,로얄드래곤
고품격관광 방콕 · 파타야 5일관광 799,000원~
특전 초특급호텔사용,전통안마,알카자,코끼리트래킹 베이욕뷔페, 씨푸드,나이트투어
돌격골프 방콕 · 파타야 5일골프(54H) 1,099,000원~
특전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중식포함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24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27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219,000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원~
광양훼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일,수)]
9/4,7 99,000원
9/11 추석기간 199,000원
9/14,18,21 129,000원
9/25,28 149,000원
10/2~12/21 179,000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9,10,11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5국(융프라우) 10일 2,090,000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44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보라카이 직항 5일 559,000원~
싱가폴 5일 659,000원~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 두암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수완점 574-1300 | 조선대점 227-8255 | 진월점 382-5353 | 첨단점 233-2627 | 충장점 222-9796 | 하남점 954-9700
서울시 중구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6층 ●서울시 중구청 등록 일반여행업 제39호 ●○표요금변동있음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가입(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1억원 여행자보험 ●1급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최소출발인원(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전일정식사제공(기내식포함) ●교통편 : 항공/버스/기차/선박 ●여행불편처리센타 1588-8692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여행일정변경 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격포함 내역]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포함/유류할증료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금액 변동가능)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국 비자비용 및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된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이며 기사/가이드팁은 권장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및 홈페이지 참조